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3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설립과 한국의 사진교육

\_ 구술 녹취문

\_ 논단 및 사진교육 역사

\_ 연보 및 관련 자료

5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3호를 발간하며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설립과 한국의 사진교육**

7 좌담회 개요 및 일정

8 일러두기

— 구술 녹취문

11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설립과 한국의 사진교육

— 논단 및 사진교육 약사

39 이경민, 한국 근대 사진교육사 연구: 1910-1945

60 해방 이후 한국사진교육 약사: 1945-1974

— 연보 및 관련 자료

64 1. 구술자 연보

65 2. 참고 자료 목록

2-1 서라벌예술초급대학 관련 자료 목록

2-2 구술자 관련 자료 목록

2-3 구술자 기증 자료 목록

69 3. 참고 자료 원문

서라벌예술초급대학 관련 자료 원문

77 연구소 기증 자료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자료들의 수집, 정리, 보존, 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발 행**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주 소** 138-724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19층  
**전 화** 02-410-9123  
**팩 스** 02-418-1316  
**웹사이트** http://photomuseum.or.kr  
**이메일** research@photomuseum.or.kr

**발행인** 송영숙  
**기 획**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집인** 최봉림, 이경민, 황사라  
**진 행** 이동은  
**녹취보조** 나보리  
**디자인** 한스그래픽  
**출력인쇄** 그래픽코리아  
**발행일** 2011년 1월

© 2011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from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저자에게 있으며, 한국사진문화연구소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SN 2093-2731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사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소실로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는 한국사진사 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3호를 발간하며

최 봉 립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대한제국이 폐망하던 1910년, YMCA(황성기독교청년회)는 본격적으로 사진 전문교육을 시행한다. 강사는 캐나다인 그레그(G.A.Gregg)와 하와이 이민자인 최창근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의 사진교육은 도제식 기술전수를 위한 기능 인력을 확보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아카데미한 전문교육 방식을 지향하게 된다. 그리고 1964년에는 서라벌예술초급대학에 2년 과정의 사진과가 설립되면서, 우리의 사진교육은 사진관에서 행해진 개인적 전수에서 집단적이며 이론적인 교습의 형태로 급속히 발전해 나간다. 다시 말해 영업사진관에서 눈동냥과 모방을 통해 개별적으로 습득되던 사진 기예는 대학의 사진과 설립과 더불어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세부 전문가가 담당하는 정규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차별로 교습되었다. 더욱이 2년제 초급대학 과정 외에, 1972년 4년제 사진학과가 신설되고 이것이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 병합되면서 한국의 사진교육은 교범으로 체계화된 아카데미한 규범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다. 반세기를 넘기면서 한국의 사진교육은 사진관 혹은 사진 동호회의 상업적이고 여가선용적인 사진 기예의 전수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논리와 실증적 연술의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2010년, 그러니까 한국사진교육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진교육사의 분기점을 형성한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 설립에 관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새한칼라의 창업자이자 사진과 초대 학과장을 역임한 김종양 선생, 2대 학과장 이재화 선생 그리고 1회 졸업생으로 다양한 상업사진에 종사했던 정동선 선생, 4회 졸업생으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를 역임한 류경선 선생이 참여했다. 좌담회의 큰 주제는 사진과의 설립 경위와 인가과정, 당시 사진과 교육의 현황에 맞춰졌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설립과 국전의 사진부 창설과 운영에 관한 일화 그리고 당시 한국 최대의 사진 기업이었던 새한칼라의 사진계에서의 역할도 언급되었다. 네 분의 구술자는 스승과 제자, 친구와 동료의 믿음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관찰을 진솔하게 밝혔다. 정동선 선생은 재학시절의 기념사진을 제공했고, 미국에 거주하는 김종양 선생은 새한칼라, 서라벌예대 사진과, FAPA(아시아사진예술단체연합회) 총회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한국사진사의 정립을 위해 아낌없이 제공했다. 출판의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자료편에는 서라벌예술초급대학 사진과와 관련된 자료와 이경민 선임연구원의 일제 강점기의 사진교육을 일별하는 논문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1974년까지의 사진교육 연표를 수록하여 한국 사진교육의 전모를 열람하도록 했다.

2011년 1월